

IBM, 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, 2030년 목표 발표”

- IBM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% 감축(74%)을 목표로 발표

- 또한, 2030년 탄소 배출량(48%)을 2025년 목표인 20%로 앞당기기로 결정



2024년 2월 29일, IBM은 - 탄소 배출량을 2030년 목표인 40% 감축(74%)을 목표로 발표, 또한, 2030년 탄소 배출량(48%)을 2025년 목표인 20%로 앞당기기로 결정

IBM 연구소(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)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규제 준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,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.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[Beyond checking the box - how to create business value with embedded sustainability](#)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74%의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. 또한, 48%의 기업이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%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. 이는 2025년 목표인 20%를 앞당기는 것으로, 66%의 기업이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%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. 또한, 3년 내 1(36%)의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규제 준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,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.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47%의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. 또한, 28%의 기업이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%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. 이는 2025년 목표인 20%를 앞당기는 것으로, 15%의 기업이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%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.

IBM, IBM은 64%의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

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

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

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<https://www.ibm.com/thought-leadership/institute-business-value/en-us/report/sustainability-business-value>

* 출처

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

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

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 IBM은 AI를 도입한 기업은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71%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.

###

<https://kr.newsroom.ibm.com/announcements?item=122769>